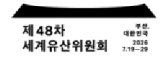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 추진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전국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도서관의 질적 성장 제고 및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생활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에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합한 포상 후보자(기관)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 개요

- (포상 대상) 공공(작은)·학교·전문·병영·교정시설도서관 22,203개관
- (포상 규모)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50점

나.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2026. 4. 15.(수)~6. 19.(금)
 - * 운영평가시스템 평가입력 기간: 2026. 4.~5. ※ 등록관청에서 설정
 - (평가입력 대상) 공공·학교·전문도서관
 - (접속 경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libsta.go.kr>) > 로그인 > 평가입력
 - * 2026년(2025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최종 결과 확정으로 데이터 수정 불가
- (추천 방법) 시도·교육청, 소관 부처(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관련 단체(한국전문도서관협회)에서 포상 후보자(기관) 추천
- (추진 절차) 공모·접수 → 전문가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 후보자(기관) 추천 → 국무회의 → 시상식*
 - *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최식(2026. 10. 28./광주광역시)과 연계하여 개최
- (제출 방법 및 제출 서류) [붙임 1] 4쪽 참고

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044-203-2613
- (사단)한국도서관협회 ☎ 070-8828-3073~3074

- 붙임 1.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1부.
2. 작성 서식 1식.
3. 정부포상 업무지침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독서문화진흥과장), 부산광역시(창조교육과장), 대구광역시(대학정책과장), 인천광역시(문화정책과장), 광주광역시(문화유산자원과장), 대전광역시(교육도서관과장),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장),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립도서관장), 경기도지사(경기도서관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 충청남도지사(균형발전정책과장), 충남도서관장(운영지원과장), 충남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문화산업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문화예술과장), 경북도서관장, 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남대표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장,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기획조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교육복지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마을협력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진로진학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복지안전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감(평생교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지원과장), 충청북도교육감(인성시민과장), 충청남도교육감(초등특수교육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창의인재교육과장), 전라남도교육감(행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행복교육지원과장), 경상남도교육감(창의인재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행정과장), 제주도서관장, 교육부장관(민주시민교육과장), 국방부장관(정신전력정책과장), 법무부장관(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사단)한국도서관협회

주무관	지선혜	사무관	곽수영	도서관정책기획 전결 2026. 4. 15. 단장	조설희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기획단-3806	(2026. 4. 15.)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도서관정책기 획단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613	팩스번호	044-203-3471	/ reading@korea.kr	/ 대국민 공개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